

“국악 즐거움…사람들과 호흡하며 매력 알리고 싶어”

2026

꿈을 쏘다 <2> 전통 타악기 연주자
이화현



완도 보길도 초등 사물놀이팀서 시작
고교·대학 한국무용·전통 타악 전공
사물놀이 마당 단원…강사로도 활동
광주 여성 연희팀 '홀릭'과 공연 준비

완도 보길도의 작은 분교에서 여섯 명의 아이들이 함께 북을 치던 시간이 있었다. 전교생이 6명뿐이던 학교에서 사물놀이를 처음 접한 아이는 이제 스물여섯의 전통 예술가가 되어 다시 남도로 돌아왔다. 전통 타악기 연주자 이화현(26)의 이야기다.

기자는 최근 경기 평택에서 사물놀이 겨울캠프 강사로 활동 중인 이화현 씨와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섬마을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져온 자신의 국악 여정을 풀어놓았다.

“섬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놀이 가운데 가장 재미있는 게 사물놀이였죠.”

이화현 씨의 고향은 완도에서도 배를 타고 노화도를 거쳐 들어가야 하는 작은 섬 보길도다. 그는 보길동초등학교 예작분교에 다녔는데 당시 분교장의 제안으로 학교에 사물놀이팀 ‘소리터’가 만들어졌다. 학원과 PC방을 오가는 ‘육지 아이들’과 달리 섬마을 아이들의 하루는 북과 장구 소리로 채워졌다.

오빠인 동현 씨와 함께 사물놀이를 시작한 이화현 씨는 팽가리와 장구, 북과 징의 장단에 맞춰 자연스럽게 무대에 섰다. 2009년 ‘광주 세계 사물놀이 겨루기 한마당’에 출전해 우수상과 인기상을 받으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 경험은 전통예술을 진로로 삼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졌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 그는 오빠와 함께 수도권 친척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안양예술고등학교에서 한국무용을 전공하며 예술의 기본기를 다졌고 무대 위에서 몸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대학 진학을 앞둔 고3 무렵, 그는 다시 국악을 떠올렸다. 사물놀이를 전공한 오빠와 함께 팽가리를 치며 느꼈던 해방감이 문득 떠오른 것이다. “무용도 좋았지만 제가 더 편안하게 즐기면서 하는 게 국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동료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눈을 마주치고 호흡을 맞추는 순간이 특히 좋았죠. 관객들이 ‘열우’하고 호응해 주는 소리를 들으면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전공을 바꾼 그는 세한대학교 전통연희학과에 진학해 전통 타악을 본격적으로 공부했다. 늦은 전향이었지만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다시 쌓아갔다. “전공을 늦게 시작해서 배운 게 많지 않았어요. 작품 하나를 붙들고 계속 연습하면서 시험을 봤죠.” 대학 시절 정기공연과 졸업연주

완도 보길도 출신의 전통타악기연주자 이화현 씨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예술가가 되고 싶다”고 했다. 이 씨의 지난 공연 모습.

〈이화현 제공〉



회 무대는 그에게 국악 연주자로서의 출발선이 됐다.

졸업 이후 그는 연희공방 음마경쟁 연수단원, 세한대학교 전통연희학과 조교를 거치며 공연과 교육 현장을 함께 경험했다. 특히 ‘사물놀이 마당’에서 최찬균 선생에게 사사한 시간은 그의 예술관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물론 전통예술가로서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전공자는 계속해서 늘어났지만 공연과 교육 기회는 한정돼 있었다. 그는 활동 무대를 다시 고향 전남으로 옮기기로 했다. 수도권과는 다른 환경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현재 그는 공연과 교육을 병행하며 활동하고 있다. 해남에서는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가는 공연에 참여했고, 광주에서는 학교 무대에 섰다. 올해부터는 방과후 수업을 맡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광주 여성 연희팀 ‘홀릭’과의 활동을 준비 중이다. 사물놀이 마당

단원이자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 사물놀이 강사로서 충청권과 전남을 오가는 생활도 이어가고 있다.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북을 치면서 즐거워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국악을 전공으로 선택하기보다, 먼저 즐거운 경험으로 기억해길 바란다고 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그는 ‘계속하는 것’을 가장 먼저 말했다. “어릴 때부터 묵묵히 지켜봐 주신 부모님이 계셨고, 지금까지 이 길을 이끌어주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그래서 더 오래 이 일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공연도 하고, 수업도 하면서 제 자리에서 꾸준히 연주하고, 아이들에게 이 소리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기회가 된다면 해외 무대에서도 우리 소리를 한 번쯤 소개해보고 싶습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순수한 자연이 건네는 위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과 일상에 치이다보면 변하지 않는 대상이 그리워질 때가 있다. 원초적이며 순수한 자연은 변화무쌍한 세대 속에서도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자연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 쉼과 위안을 주는 이유다. 특히 유년시절에 봤던 풍경과 사계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여전한 울림과 평안을 선사한다.

장연희 작가의 그림에 깃든 새와 나비, 들꽃, 사슴 등 순수한 자연의 존재들은 변함없는 친구의 이미지로 다가온다. 지난 20일 개막해 오는 3월 1일까지 영산강문화관(관장 전일표)에서 열리는 장 작가의 개인전.

‘스며들고 피어나다’라는 주제처럼 화폭에서는 꽃과 자연이 피어나고 관객들 내면에는 동심이 움튼다. 작가가 유년시절 자연과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오롯이 전해지는 느낌이다.

‘Res’t(쉼)’은 다양한 꽃들이 에둘러 피어 있는 의자에 앉아 있는 새를 초점화한 작품이다. 새가 머물며 쉬고 있는 풍경은 훼손되지 않는 순수한 자연을 대변한다. 관객들은 마치 자신을 화폭 속에 깃든 한 마리 새로 친환하는 ‘전도’의 느낌을 받는다. 빠르면서도 두툼한 붓질이 묘사해낸 자연과 인간 내면의 강한 생명력이 조화롭게 구현돼 있다.

특히 독특한 조형효과와 색의 대비로 표현되는 동화적인 풍경에는 사슴이 곤잘 등장한다. 자연과 인간을 이어주는 매개체임을 알 수 있다.

전일표 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하루하루 빠르게 전개되는 일상에서 잠시 쉼표와 같은 시간을 갖길 바란다”며 “꽃과 새와 나비가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좋을 듯하다”고 전했다.

한편 장 작가는 북촌 갤러리(여수)를 시작으로 불광불루 호텔페어(서울) 등 초대·개인전, 다수의 국내외 단체전 및 주요 아트페어에 참여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장연희 개인전
3월 1일까지
영산강문화관



‘Rest’(쉼)

공연장 문턱 없애기 ‘김장훈의 누워서 보는 콘서트’

중증장애인 위한 배리어프리 공연…2월 7일 서빛마루문화예회관

공연장은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할 공간이지만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높은 문턱으로 남아 있다. 훨체어가 지나가기 힘든 계단과 좁은 통로,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주변을 살피게 되는 좁은 공간의 설렘보다 먼저 부담을 안긴다. 그런 장애인들을 위해 누운 상태로도 음악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콘서트가 광주에서 열린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공연 ‘김장훈의 누워서 보는 콘서트’(사진)가 오는 2월 7일 오후 4시·6시 30분 두 차례에 걸쳐 광주 서빛마루문화예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중증 와상 장애인과 가족들이 신체적 제약 없이 공연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무대와 객석 사이 공간을 ‘특별 관람석’으로 꾸민 것이 특징이다. 관객은 훨체어나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도 무대와 시야를 확보해 편안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무대에는 팝 소프라노 한아름과 민요자매가 함께 출연해 장르를 넘나드는 협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가수 김장훈은 공연 관람이 쉽지 않은 장애인을 위해 ‘누워서 보는 콘서트’를 전국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그는 인천국제공항, 서울 코엑스 별마당도서관 등에서 같은 형식의 공연을 선보이며 장애 인식 개선과 문화 접근권 확대에 힘써왔다.

이번 공연은 민간 기부와 시민 참여가 함께 만든 무대이다. 광주 서구 고액 기부자 모임 ‘서구아너스’가 공연비 3700만원을 후원하며 힘을 보탰다. 일부 좌석은 ‘장애인공감 좌석’으로 운영돼 일반 관객이 1만 원 기부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으며, 모인 기부금은 관내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사용된다.

광주 서구 관계자는 “중증장애인 가족의 정서적 고립을 덜고, 시민들이 기부를 통해 자연스럽게 장애 공감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민간의 나눔이 지역 곳곳으로 이어져 기부가 일상이 되는 문화가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누리집 개편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최근 개편한 ‘국가유산 지식이음’ 누리집에서 고대 말과 관련한 조사·연구 흐름을 정리한 콘텐츠 ‘마부정제’(馬不正蹄)를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국가유산 지식이음은 국가유산과 관련된 연구 성과와 원문 정보를 모은 온라인 공간이다.

연구원은 누리집을 새로 단장하면서 연구자뿐 아니라 일반 이용자도 주요 연구 성과를 주제별로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테마 콘텐츠’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마부정제’와 함께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에서 보존 처리한 국가유산 중 재질별 대표 유물을 소개하는 ‘국보·보물 보존 처리 6선’도 소개한다.

연구원은 디지털 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도 일부 개선했다.

‘제2회 여수순천 10·19 평화문학상’ 수상 작품집 출간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2회 여수순천 10·19 평화문학상’ 수상 작품집이 나왔다.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영)이 발간한 제2회 여수순천 10·19 평화문학상 당선작품집에는 모두 15편이 수록돼 있다.

소설 부문 최우수상 장병호의 ‘징관산 부영새’를 비롯해 시 부문 정남희의 ‘등불을 깠던 사람’ 외 4편, 아동 문학 부문은 서이윤의 ‘우리들의 심부름’ 등이 실렸다.

이번 작품집은 지난해 5월부터 공모를 거쳐 최우수작과 우수작으로 뽑힌 시, 소설, 아동문학 작품들이 담겼으며 여순사건의 상흔을 문학으로 재조명하고 역사적 교훈을 함께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작품들은 비극의 재현을 넘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제와 조용해 미래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특징을 보인다.

김은영 대표이사는 “여수순천 10·19 평화문학상” 공모는 여순사건의 상흔과 역사적 진실을 조명하고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이번 작품집 발간을 통해 당대의 시간을 의미 있게 구현하는 작품들이 많아 창작돼 독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작품집은 도내 국립 도서관과 학교에 배포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기능도 일부 개선했다.